



# 다큐, 비리 고발만?...희망도, 판타지도 OK!

소재와 장르의 한계를 넘어선 다큐 영화가 11월 잇달아 개봉한다. '딜쿠샤'(위 사진)는 판타지를 가미했고, '시소'(아래 작은 사진 위)는 휴먼다큐, '나의 살던 고향은'은 역사 다큐다.

## 12만 돌파 '자백' '무현' 흥행 이들 다큐들



'딜쿠샤' 판타지 개성 가미한 시도 화제 '시소' 장에 가진 두 아씨의 희망 여행 '나의...' 김용옥 교수, 역사교과서 자처

다큐멘터리 영화가 소재와 장르의 범위를 넓힌다. 인간애를 담은 휴먼 다큐를 넘어 최근 사회고발성 다큐가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판타지의 개성을 가미한 장르로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11월은 '다큐의 계절'이라고 불려야 할 정도다. 이달 들어 완성도를 갖춘 다큐 영화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백'(감독 최승호·제작 뉴스타파)이 7일 사회고발 다큐로는 처음 12만 관객을 동원했고, 고노무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을 담은 '무현, 두 도시 이야기'(감독 전인환·제작 '무현' 제작위원회) 역시 12만 돌파를 앞섰다.

모두 최근 극장가를 휩쓴 흥행 대작이 없는 틈을 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자백'과 '무현'의 열기를 이어받을 또 다른 다큐 영화들도 공개된다.

24일 개봉하는 '딜쿠샤'(제작 인디캡)는 최악의 상황을 딛고 일어서려는 이웃들이 전하는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이다. 연출을 맡은 김태영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1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인인 된 감독은 생활고 탓에 고시원에서 살아 가지만 자신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이웃을 만나 삶의 새 빛을 찾는다.

'딜쿠샤'는 익숙한 휴먼 다큐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판타지의 개성을 가미하는 과감한 시도로 전주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소개됐다.

10일 개봉한 '시소'(감독 고희영·제작 SM C&O)는 장에 가진 가장이자 딸을 둔 아빠인 두 남자가 함께 떠난 여정을 통해 장애가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주인공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개그맨 이봉우와 근육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임재신이다.

두 남자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다'는 이봉우의 사연을 TV로 접한 임씨는 자신의 망막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7년 전 일이다. 두 사람이 함께 떠난 열흘간의 제주도 여행을 담은 이번 영화도 그 인연의 계주로 자연스럽게 제작됐다. 이봉우는 "여행을 통해 임재신과 진정한 친구가 됐다"고 했다.

역사 다큐도 뒤따른다. 24일 개봉하는 '나의 살던 고향은'(감독 류종현·제작 후즈닷컴)이다.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가 고구려와 발해의 흔적을 되짚으면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역사교과서 역할까지 하는 영화다. 제작진은 국정교과서 논란이 가열될 무렵 영화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 민족의 뿌리 찾기'를 목표로 내걸었다. 김용옥 교수는 "한국의 젊은이, 특히 중고등학교 생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 안성기·장동건, 저예산 다큐 돕기 '한번 더'

톱스타 안성기와 장동건이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발 벗고 나선다.

두 사람은 김태영 감독의 다큐 영화 '딜쿠샤'의 제작비 일부를 후원한 데 이어 시사회 무대인사에도 참여한다. 영화의 주역이 아니면서도 무대인사를 통해 관객을 만나 영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또 다른 후원인 셈이다.

안성기와 장동건은 22일 오후 8시 서울 롯데

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리는 '딜쿠샤'의 시사회에 참석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연출자 김태영 감독과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인사를 전하고 영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

이에 앞서 안성기와 장동건은 '딜쿠샤'의 제작비 일부를 후원해 영화계 따뜻한 미담의 주인공이 됐다. 안성기는 이미 지난해, 장동건은 최근 김태영 감독의 어려운 작업 환경에 힘을 주기 위해 각각 힘을 모았다.

두 사람은 김 감독과 맺은 오랜 인연으로 이

'딜쿠샤' 특별 출연·후원 이어 22일엔 시사회 무대인사까지

같은 후원이 나섰다. 장동건은 2002년 주연한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를 통해 기획 및 제작자였던 김 감독과 우정을 쌓아 왔다. 안성기는 김 감독이 '2009 로스트 메모리즈' 흥행 실패 이후 제작에 도전한 본격 뮤지컬 영화 '미스터 레디'의 주연배우로 나선 뒤 그 미만의 작품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녀 왔다.

두 사람은 각기 영화의 일부 장면을 '딜쿠샤'에 삽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특별출연으로 도움을 올렸다. 이번 시사회 무대인사 역



안성기 장동건

시 특별출연 배우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예산 다큐 영화와 그 연출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백슬미의 레알 대사발

드라마는 늘 명대사를 남긴다. 하지만 모두 챙겨 볼 여유가 없다. 방송사의 모든 드라마를 꿰고 있어야 하는 직업. 한 주 동안 시청자를 웃고, 울린 그리고 또 가슴을 찡신 '한 줄', 그래서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일상에서도 써보기를 권하며.

### ● "일하고 싶어요."(tvN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5' 11월 8일 방송 중에서)



얼마나 평범한 한 마디인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는 것에 비유될 만큼 어렵다. 나이 마흔을 앞두고 졸지에 백수가 된 여자(김현숙)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면서도 정신은 말짱하다. 일이 하고 싶은 마음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잊혀지지 않는다. 남자친구(이승준)에게 울면서 속내를 털어놓는 여자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만 하다.

### ● "목플라 입지 마."(SBS 수목드라마 '질투의 화신' 11월9일 방송 중에서)



'웃가게 사장님이 이 대사를 싫어합니다'. 당분간 연인 사이에 입어서는 안 될 웃이 될 것 같다. 꼭 날 같은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목플라를 입었더니 남자친구(조정석)가 벗기기 힘들니 입지 말라고 한다. 모두 경험해져 보지 않았다. 목플라를 벗다보면 머리카락이 형용사이고, 얼굴이 일그러진다. 무엇보다 얼굴을 빼내는 것 자체가 힘들다. 여자친구(공효진)가 알려준 방법이 하나 있다. "대한독립만세" 하듯 양손을 하늘로 뻗으면 상대방이 벗겨주기 조금 수월하다.



## 송혜교 '원판 불변의 법칙'



송혜교의 혈액형은 '인형'이 맞는가보다. 초롱초롱한 눈, 오뎅한 코, 양 다분 입술까지 어디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 5~6살 때로 추정되는 송혜교의 어릴 적 모습이 공개됐다. '원판 불변의 법칙'을 입증하듯 현재 모습 그대로다. 송혜교는 13일 엔 데뷔 20주년 및 생일(22일)을 기념하는 팬미팅에 앞서 어린 시절 모습을 공개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종영 후 화보 촬영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송혜교는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면서 차기작을 고를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송혜교 #원판불변의법칙 #인형 #미인형 #송혜교

## TV 프로그램 14일(월)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November 14th (Monday)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KBS, MBC, SBS, and others.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